

佛敎의 眞髓(續)

朴秉鎬

二, 佛敎의 目的

旅行하는 人 의 問曰何處에서從來하나냐彼曰不知라하면其愚를可笑할지오 頓挫한 人의 問曰座所는何地이나彼曰不知라하면其痴를亦笑할지로다 그러나一步를進하야更問하되汝는何處로부터身體를稟受하얏스며또人生이라함은如何한 것이냐하면明白히應答할者-千萬人中幾人十人에不過할것이니 이엇지至愚가아니리요 螻蟻도居所를知하고燕雁도其往來하는處所를知하거던況且萬物의靈으로써自誇하는吾人人類-엇지其身의從來하는處를不知함이可할가 吾人이佛敎라는問題를解釋코져할진디第一吾人은何處에서 來하얏나하는問題를먼저查究치아니치못할지라 不然하면吾人은何處에서來하야스며또何處로往함을不知하는二界의一迷者가될뿐이라하노라

前場에縷迷함과갓치宇宙는平等과差別의二에서成흔것이라 그러나平等眞如의法性은隱하고顯치아니한다 흔갓吾人의所睹處의宇宙는悉皆差別現象의世界가되자아님이업다 此差別現象을試見하라山河大地草本禽獸의무엇이活動이無하며變化가無흔가 彼水流山枯 風馳電掣 花開葉落 雁來燕歸의變遷活動은一瞬間이라도常住不變하기不可能하다 人生도亦是此하니榮은가되고 故는榮이되며盛은衰가되고 衰는盛이되며 幼는長이되고 稚는老가되여一時刻이라도定相이업다 그러나 此常相이無흔萬物은恒常變化하야止할時가無하되變化가無흔것으로見할진디變化치아니한다 變化가眞相인지變化하는것이變化치아닌것인지! 物質界에또흔成 住 壞의四가有하다成劫의始는空劫이오 空劫의終은成劫이라 更히詳說하면衆生의業卽因緣力이機熟하는故로空中世界를成하고萬物이其中에安住하며 또因緣力이漸々衰頽하는故로世界破壞하야萬物이또흔一塵도업시終은空이되나니라 空또흔業力이機熟하야成이되고壞가되고住가되고또空이되여서轉々數千載에更히變함이업나니라 生老病死도亦然하니如斯히相續不斷하야連環히서無量無邊흔三世에亘하야無始無終으로輪轉함이로다

釋迦所說의 大小乘은 實로 此業力의 所感을 決斷하야 萬劫不變의 常道를 示함에 不過하다 物質이 有하 後識心이 有함인가 識心이 有하 後物質이 有함인가 前後를 立함에 色心의 二法이 잇다 業力이 잇서야 한다 道에는 古今이 업고 理에는 通塞이 업다 그러니 此理法은 終是 渝치 못 할 것시라 此理法이라 함은 何를 謂함 이오 因緣生의 理가 卽是也로다 試컨 된 一片의 玉芙蓉을 拈看하 其發生하 種字의 因과 土地氣候의 緣과 機熟하야 美麗하 花를 開호 此花는 卽果로다 그러나 其因을 求코저 홀진디 植栽者도 因이오 鋤鋤도 因이 된다 又一步를 進하 鋤鋤는 鍛工에 因치 아니하 면 鍛工은 金屬이 無하 면 不得하 고 水火가 無하 면 不能하다 水火亦是 此를 生하 因緣이 不可無오 金屬도 又 此를 運搬하 人이 不可無하 며 發掘하 坑夫도 亦不可無라 更進하야 此坑夫에 就하야 見호 進디 衣-不可無오 食不可無오 住-不可無라 하노라 衣食住는 自然이 生함 이 아니오 許多한 因緣을 作하야 成하나니 如此히 追尋호 進디 一毫一物이 悉皆 萬有의 因緣에 依하야 生함 이라 相待相倚하야 孤立하 者-一도 無하다 此가 卽吾人이 萬有現象의 社會을 以하야 有限이니 相對이니 云하 所由 일다 그러나 此力으로 萬有가 能存치 못하 고 萬物이 모도 一이 되여서 能히 基形을 成치 못함은 卽萬有有 自性이 잇음을 稱함 이라 한갓 此因緣의 化合-因緣인 故로 有라 하 無性인 故로 空이라 한다 아有인가 空인가 有도 아니오 空도 아니라 有아니라 하나 因緣에 依하야 感應이 歷然하 空이 아니라 하나 因緣을 去하 實體가 不有하다 涅槃經에 「非有非空亦有亦空」이라 함이 眞히 是理를 云함 이로다 그러니 因緣은 更히 因緣이 되여 果를 生하 故로 다시 因緣이 되는 故로 이 萬有因緣의 化合을 透徹키 玩味호 進덴 執着의 想은 自然이 無호지라 於是에 妄想이 萌하아니하 煩惱가 起치 못하나니 能히 差別을 離하야 平等界쥔만 指稱함 이 아니오 眞空妙有를 意味함 이라 하노라 眞空妙有라 함은 有가 卽空 空이 卽有됨을 謂함 이며 差別이 卽平等 平等이 卽差別이 됨으로 本性을 삼앗나니 「到得還來無別事廬山烟雨浙江潮」 이것이 卽眞如(佛敎所謂 絕對)의 本性이라 호지니라

更히 一翻

하야 自己의 心身을 視察호 進덴 吾人은 有가 아니오 한갓 四大 (風水火土)의 相合쥔 인즉 此를 離하 我가 存在는 無하다 그러나 又 空이라 云키 不可호지라 人도 亦是 因緣의 力을 依하야 出來하 者이니 이것은 한갓 假體로써 美라 云하 醜라 云함 이 모도 執着의 迷見 이로다 大哉라 因緣의 力이여 空間的에 十方에 亘하 時間的에 二世에 通하니 十方三世 다그의 支配하 吾人도 又 此業力에 依하야 生來함 이니 業力은 何에서 生함 인가 曰 惟心의 所現 일다 卽左의 畧設함 과 하노라 既히 述하 바와 갓치 此世는 差別의 現象이니 差別은 何에 依하야 生하 因緣生의 理에 依하야 生함 이라고 屢泄하 엇거니와 業力은 唯心의 所現이라 其本性에 在하야 差別이 無하니 三界唯一心 心外別無法이라 하 金鉉論曰 萬法은 是眞如라 不變에

由호는故이오 眞如는是萬法이라隨緣에依호는故이니阿鼻(地獄)依正極聖의自身에處호고毘廬의身土는凡下의一念을超치안타」 호엿다毘廬는何也오 「遍一切處」翻譯호이라遍一切處인故로卽平等差別이라所謂乾坤悉成黃金身萬有全彰淨妙身」이라호者-卽心識의作用이라호지로다 平地에波瀾을起호야餓鬼가되거호면餓鬼가現호며 畜生이되거호면畜生이現호나니라山河가言치못호고大地-語가無호되호갓心識으로써山河大地라稱호이니 起信論에曰心生種々法生호고 心滅種々法滅이라호여스니 此心이여許多호因緣과合호야茲에十界迷悟의區別을成호이라 要컨댄宇宙는必히其界各自의 因果果를具足호이니其果體에色心の二法을兼호고其因은專히 心識의作用에依호바-라 心에忠孝의念이無호고호갓貪婪無智호면畜生界를現호나니深히 因果의眞相을信호지어다 佛에歸호며佛을念호야能히自覺々他의願行을完全히호면此心은既히佛界에屬호이라호다 憐호다人生은오히려悟界의性得임을未知하고 空然히罪惡의巷에轉輾하야苦惱의生活을成하니佛이此를憫諒하야轉迷開悟의法을設하야一切衆生을하여금此迷界를脫하고圓滿한悟界에人케함이니佛教差別의要實노此에在하노라

何를迷라云하며何를悟라云하나뇨!能히平等眞如의性을悟得함을悟라云하고愛深差別의衆에迷함을迷라云하니라 佛家에此迷悟의境界를分類하야十種으로하되曰地獄 餓鬼 丑生 修羅 人間 天上 聲聞 緣覺 菩薩 佛이라此를更히約하야四聖六凡이라云하다 烈火의中에身이苦하야呀喚의聲을放하는地獄一滴의水와一粒의米를得키不能하야飢餓에迫한餓鬼 吞噬自擅하는畜生 殘害無盡한修羅少進하야名利에奔走하는人間 此에天道를加하야六凡이라하고餘外의四는卽佛菩薩 聲聞 緣覺 此를四聖이라하다 此四者의中에佛界는가장完全한悟界오後三者는모도眞理의幾分을悟할다람이로다 上述과 如히吾人生은悟界에屬지안코米界에在한故로有限差別의相에罹하야 愛着의念이恒常不絶하다 若此心を批除하고能히平等의理를悟할진딘卽無限이되여繫累함이無하고苦樂愛着함이無호야天空快濶에一點의塵影이업시能히妙機를發하야絶對의境域에庶幾得達할거시라 佛陀는實노此道를教授코져호미엿다 아-我의身은因緣의業力에依하야生하고唯心の所現에依하야見할지라 佛陀의敎法을不聞하면엇지此를知得할가.悲哉

未完